

#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축산전문박람회로 거듭나다. VIVAsia 2009

취재 이희영 기자

아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VIVAsia2009가 지난 11일~13일까지 태국 방콕소재 BITEC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39개국 568개 축산전문기업들이 참가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박람회로 자리 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축산선진국 10개국과 함께 국가관을 운영했으며 참가국 중 6번째로 많은 총 27개 업체가 참가했다.

## ⊗ 전세계 568개 업체 참가... 축산기술 경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동물약품업체들이 대거 참가했고 종축개량협회는 본격적인 종돈 수출을 위한 한국산 종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VIVAsia 2009에서는 특별주제로 '계란'이 선 정돼 계란과 관련된 산업 정보와 세계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울러 지난 대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VIVAsia수산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독립된 박람회

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업체들을 보면 동물약품 및 사료영양 분야가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육종 및 시설업체가 23%, 도축 가공분야가 13%를 차지했다.

또 주최 측에서 마련한 세미나는 물론 참가업체 및 각종 학회에서 30여회의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

## ⊗ VIVAsia는?

VIVAsia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시전문업



① 2009 VIV Asia 개막식. 오프닝 세레모니를 통해 2009 VIV Asia 개막을 공식발표하고 있다. ② VIV Asia 2009가 개최된 태국 방콕소재 BITEC건물 전경 ③ 개막식에서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④ VIVAsia2009에는 총 28개의 한국기업들이 참가했다. 사진은 14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관 모습 ⑤ VIV Asia 첫날 한국관 숙소인 원저수이트 호텔에서는 태국 동물약품협회와 태국FDA 담당자를 초청, 시장 및 정책방향을 살필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⑥ 영국 체리베리사는 영국관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다. ⑦ 프랑스 그리므드사는 독립부스를 설치해 종오리와 함께 자사 중계와 함께 홍보했다.

체인 VNU사가 주관하고 있는 VIV시리즈 중 하나로 태국의 NEO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박람회이다. VIV시리즈는 VIVAsia를 비롯해 VIVEurope, VIVRussia, VIVChina, VIVTurkey, VIVIndia 등 6개로 이 중 VIVAsia가 가장 큰 규모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특히 VIVAsia는 지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찬 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

VIVAsia가 아시아 시장의 축산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중국과 인도에서도 VIV시리즈가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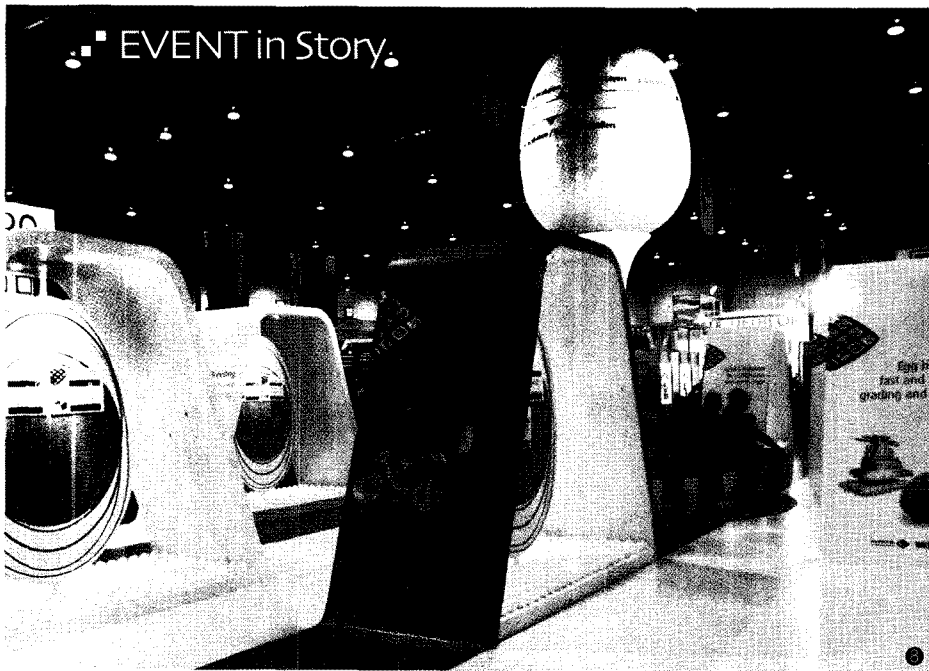
### ☞ 계란 특별프로그램 운영

VIVAsia 2009에서는 과거와 달리 특별주제로 '계란'을 선정해 계란에 대한 육종, 사료, 동물약품, 기자

재, 가공 등 생산에서부터 가공분야까지 총 망라한 다양한 주제로 집중 조명됐다.

태국 NEO사의 나다 이사는 "계란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품질 계란 생산과정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혁신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라며 "다른 분야도 다양한 기술과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특히 계란과 관련된 업체나 연구자들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계란에 대해 7개 테마를 정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소개됐다. 7개 테마에는 균일하고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유전 및 번식분야를 비롯해 균일한 생산을 위한 부화 분야 고품질의 계란생산을 위한 사료 및 영양 등이다. 또 깨끗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축사시설분야 건강을 위한 동물약품분야, 생산수명과 생산성을 최대로



③ 특별주제로 선정된 계란 유통상회시킴 조형물 모습. ④ 축사상시독시스템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관계자들이 바이어들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⑤ 한국중축개량협회는 국내산 종돈의 동남아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참가해 동남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기 위한 계란생산분야, 효율적인 등급판정과 포장  
을 위한 계란가공분야 등이다.

다만 오리분야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종오리 수입국인 프랑스의 그리므드사와  
영국의 체리밸리사가 참여하여 오리육종 산업 및 자  
사의 품종을 홍보하였다. 영국 체리밸리사의 경우 영  
국관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므드사는 별도의 독립  
부스를 운영했다.

### ⑧ 한국업체 대거 참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업체는 총 28개가 참가했다. 특  
히 주요 축산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관  
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동물약품업체가 주로 참가해  
14개 업체로 구성됐다. 또 아울러 한국관과는 별도로  
참가한 업체들도 13개 였으며 중축개량협회는 동남  
아시아로의 종돈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한국산 종  
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국관은 하루 종일 북적였다. 설 새 없이 외국바이어  
가 찾아왔고, 현지 농장의 관심도 컸다. '프리미엄  
(Premium) 코리아'를 내걸은 한국관은 은은한 조명  
으로 동양의 신비감을 심어줬다. 성과도 잇따랐다. 대

한누팜이 영양생균제 '카우믹스'를 파키스탄에 150  
톤 수출기로 계약을 맺었고 코미팜은 양계백신을 터  
키에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가지각색의 홍보  
물은 참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존 거래처와 끈  
끈한 정을 이어갔고, 신규거래처 발굴도 분위기를 달  
구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원사격도 빛을 발했다. 박람회 첫날, 태국 동물약품  
시장현황과 인허가 절차를 살필 수 있는 세미나를 개  
최, 생생한 현지정보를 제공했다.

한국관은 사뭇 진지했고 수출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표정에 묻어났다. 그만큼 벼랑 끝의 절박함도 나타났  
다. 전시참가 업체업들은 '한국'과 '한국산'이 예년  
에 비해 훨씬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가능성도 커  
졌다고 말했다. 이번 VIVAsia 2009를 통해 수출시장  
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

